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구스타브 도레, 「군중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c1865).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 오늘의 전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마르 4,26-34 참조)

겨자씨는 아주 조그마해서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하지만 겨자나무는 집채만큼 크는 큰 나무입니다. 작은 희생과 봉헌, 작은 결심과 실천을 통해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크고 거창한 것만 찾는 사람, 자기 재주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입니다.

제1독서 예제 17,22-24 **제2독서** 2코린 5,6-10 **복음** 마르 4,26-34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하창호 가브리엘 신부 | 매호본당 주임

작음의 신비

얼마 전 방송을 듣다가 씩씩한 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40억 원을 들여 그 지방 호수에 동양에서 물을 가장 높이 쏘아 올리는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70m까지 올라가는 분수였으니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지요. 하지만 가뭄이 좀 들면 주변에 물이 빠져 분수를 가동할 수 없었고, 연간 2억 원에 이르는 전기료 또한 감당하기 버거워 이듬해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몇 년을 방치하다가 최근에 분수 시설을 모터와 고철로 분해해 7억 원에 팔려고 내놓았으나 이마저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세계 최대의 무쇠 가마솥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솥을 기네스북에 올려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군민이 한술밥을 지어먹는 이벤트를 벌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대형 솥 제작의 취지였다고 합니다. 높이가 2.2m, 둘레 17.8m, 무게가 43.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솥이었고, 뚜껑 무게만도 5톤이나 되어 뚜껑을 여닫을 때에는 기증기를 이용해야 한다니 크게 만드는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더 큰 솥이 있어서 기네스북 등재는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솥이 너무 커서 밥을 지으면 3층 밥이 되곤 했고, 옥수수 삶는 데에만 몇 번 사용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빠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욕망인가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작음에서 출발하라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는 하느님의 나라의 특징을 비유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나라이고,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은 비록 그 시작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풍성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작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가장 작은 모습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 작은 등불 하나, 겨자씨 한 알, 누룩,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잘 것 없고 왜소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거창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음이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당신 자신에게 해 준 것(마태 25)이라며, 작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작음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풍성하게 키워주시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 것 없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해서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가 도대체 하느님께 가기는 해?” “나 혼자 하는 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세상이 영망인데...” 아닙니다. 오늘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사랑 실천 하나는 당장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엄청난 하느님의 힘을 불러 오는 신비로운 작은 씨앗입니다. **필름**

믿음의 길

생각과 말과 행위

허창옥 데레사 | 계산본당

“나는 길을 잃었네. 어두운 숲속에서...” 이 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대서사시 『신곡』의 초입에 나오는 정황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단테는 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으나 세 마리의 짐승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 마리의 짐승은 표범과 사자, 늑대입니다. 이 비유는 좀 무서운데요, 어두운 숲속은 죄에 물든 단테 자신입니다. 각각의 짐승은 향락과 오만, 탐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죄를 짓고 세속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죄었으며...”라고 고백을 하며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혹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세 마리의 짐승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우리 앞을 막고 있거나 앓을까요? 생각, 말, 행위, 세 개의 낱말이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를 하게 되니까요.

어느 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하늘이 참 푸르다. 새소리 높고 뽕에 와 닿는 바람은 비단결처럼 보드랍다.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 잘 살아보고 싶다.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날에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이 천근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될 대로 되겠지.’ ‘말’도 그렇습니다. 말이야말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칼날이 되기도 하지요. 말로써 상처주고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던진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가슴에 꽃힌 상처는 오래 되집고 헤집으며 괴로워합니다. ‘말’을 두고 긴 성찰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란 말들이 거짓없이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견다보면 길옆에 핀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꽃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습니다. ‘행위’는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보통은 생각을 거쳐 말로 표현하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선악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먹고 잠자고 움켜쥐고 내려놓고 따위가 다 행위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그다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니까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고운 말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어두운 숲속을 벗어나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기뻐하고, 작은 생명을 어여삐 여기며, 떨어진 이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뜻대로 다스리소서.” **궤약**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

밤의 회복

김병주 제도 신부 | 범어본당 보좌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세 1,1)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 그리하여 자연히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 생겨났다.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은 빛과 어둠의 시간, 곧 낮과 밤이 오고 가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밤’을 잃어버리고 있다.

나 역시 언제부턴가 ‘밤’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밤의 시간에 활동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밤 시간을 즐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즐비해 있다. 새벽까지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과 건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간판들의 불빛은 조금의 어둠이라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듯이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먹을거리로 가득해 있고 어디든지 쉽게 술을 마시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밤 문화이다. 24시간 가동되는 패스트푸드와 해장국 집들은 우리가 밤에 기대어 쉬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경험해야 할 흥미진진한 문화 중에 한국의 ‘밤문화’를 꼽았을까!

우리는 밤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 내는 소리와 빛으로 밤의 침묵을 깨트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밤이 선사하는 이 시간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효용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밤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한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인간에게 지친 마음과 육신의 치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또 다시 활동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쉼을 통해서이다. 하느님이 7일간의 창조 가운데 하루를 쉬신 것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날을 선사해주시기 위함을 기억해야 한다. **김민**





다들 그렇게 한단다

한 아버지가 여섯 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그만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그 밑에 만 원짜리 몇 장을 감추어 건네줬습니다. 돈을 본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례까지 붙이며 아버지를 그냥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광경이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방학을 맞아 과일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아저씨는 보이는 곳에만 싱싱한 과일을 올려

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춰 뒀다가 팔 때 몰래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아이가 성년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님은 아이를 향해 다그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던 말이나!”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

금주의 성인

| | |
|--------|---|
| 6월 14일 | 성 디나(동정순교자, 853년), 성 루피노(순교자, 287년) 성 메토디오(주교, 콘스탄티노플, 847년), 성 발레리오(순교자, 287년) |
| 6월 15일 | 성 둘라(순교자, 310년), 성 란텔리노(수도원장, 686년경), 성 모데스토(순교자, 300년경) 성 바르도(주교, 마인츠, 1053년), 성녀 베닐디스(순교자, 코르도바, 853년) 성 비토(순교자, 300년경), 성녀 엘리이다(동정녀, 스텔라베르그 1250년) 성녀 제르마나 쿠쟁(동정녀, 목동, 피브락, 1579~1601년), 성녀 크레센시아(순교자, 300년경) |
| 6월 16일 | 성녀 루갈다(수녀, 신비가, 에비에르, 1182~1246년), 성 벤노(주교, 마이센, 1106년) 성 아우렐리아노(주교, 아를, 551년), 성녀 올리타(순교자, 타르수스, 304년) 성 퀴리코(순교자, 타르수스, 304년) |
| 6월 17일 | 성녀 데레사(수녀원장, 포르투갈, 1250년), 성 베사리온(은수자, 이집트, 4세기말경) 성 아비토(수도원장, 미시, 530년), 성 히메리오(주교, 크레모나, 560년) |
| 6월 18일 | 성녀 마리아(동정순교자, 8세기), 성 아만도(주교, 보르도, 431년) 성녀 엘리사벳(수녀원장, 쇼나우, 1129~1164년), 복녀 호산나(동정녀, 만투아, 1449~1505년) 성 테오다토(주교, 364년), 성 로무알도(은수자, 수도원장, 951~1027년) |
| 6월 19일 | 성녀 올리야나 팔코네리아(설립자, 1270~1341년), 성 제르바시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성 프로타시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
| 6월 20일 | 성 고반(순교자, 670년경), 복녀 미첼리나(과부, 페자로, 350년) 성 바노(주교, 테루안, 710년), 성 실베리오(교황, 순교자, 538년) 성 아달베르토(대주교, 마그데부르크, 981년), 성녀 플로렌시아(수녀원장, 636년) |

교구장 대주교님 울릉도지역 사목방문 (6월 5일~7일)

■ 천부성당 평일미사 봉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5일(금) 오후 8시 천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시고,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천부성당 새 성전 건축현장을 둘러보셨다.

■ 도동성당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6월 7일(일) 오전 10시 30분 도동성당에서 65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4주간, 2015. 6. 14.~20.>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시편 85-89장 | 90-96장 | 97-103장 | 104-106장 | 107-110장 | 111-118장 | 119장 |
| 환인 | 환인 | 환인 | 환인 | 환인 | 환인 | 환인 |

- 탄원시편: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나 개인의 불행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자기네 편이요 자신들을 도와주실 능력과 원의를 갖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 두려움, 슬픔, 분노에 대한 인간적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성실과 자애에 대한 신앙인의 증언이기도 하다.
- 감사시편: 하느님의 도우심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미리 예약하는 구실도 한다.
- 군왕시편: 온 백성의 대표자, 하느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임금에 대한 노래이다. ⇒ 예수님께 적용된다.
- 지혜시편: 우주의 질서와 정의를 지배·통제하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자애에 대해 고백한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예수님 마음에 비하면



미사안내

| | | | |
|------------------|----------------------------|------------------|-----------------------------|
|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6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6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6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 노동자와 함께하는 미사 | 6월 19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
|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 6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6월 20일(토) 10:00 월성성당 |
|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6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 미바회 월례미사 | 6월 20일(토) 11:00 성모당 |
|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 6월 15일(월) 11:00 한티순례자성당 | 프란치스칸의 후원회 미사 | 6월 20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
|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6월 17일(수) 10:00 평화성당 | - | - |

성소 |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20(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주제: 환대하는 예수 성심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6.21(일) 14:00, 부산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6.19(금) 23:00~21(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차량: 시민회관 16:00 출발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길' 기도 모임

일시: 6.21(일) 14:00, 상동성당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2015 마리아폴리 초대

기간: 7.24(금) 14:00~27(일) 12:00

장소: 코모도 조선호텔(경주보문단지 내)

주최: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신청: 홈페이지 www.focolare.or.kr

교육 | 모집

모자녀 조이플스테이

기간: 8.8(토) 17:00~9(일) 15:00

대상: 모자녀 12가족 선착순

회비: 2인 10만 원 (세면도구, 미사)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신청: (010)2649-2045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앞 21:00

차량문의: 김명옥, (010)5529-3186

평화방송 가톨릭 영어캠프

예수회 신부님과 수녀님의 영성수업

기간: 7.23(목)~8.19(수)(4주)

장소: 필리핀 마닐라 클리르리조트

대상: 초등 2학년~중 3학년

문의: (02)734-0999, www.pbc.co.kr

46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3(목)~8.16(일)

세계 학생들과 연수 & 런던 관광

대·일반: 6.28(일)~8.9(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연수 & 홈스테이

문의: 그린피시엔티, (02)3446-4250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4박 5일 58만 원)

아키타 성모님 순례(2박 3일)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홀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오로걸석클리닉(24시간 책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임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구스다운/커버 **이불 / 침구류**
 국내/국제특허 **성당방식 / 단체사은품**
 CARITAS
 HAN KWANG **안젤라 권순화**
한광 010-9357-9988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안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안끼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053)255-9077
010-9447-5193

코리아알트만 대구은행역 범어네거리
결혼정보회사 1번 출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코리아 알트만 (4F)**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체크하세요
 ☑항문(지질)수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진강경진
 ☑신장내시경 ☑신경내시경
 ☑신경통 대우이파트 앞
 병원장 노성균
 의학박사 아우구스티노스
959-7175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일)은
(故)박창수(요한) 문시놀
선종 6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월막(성령봉사회)성당 성전봉헌식

일시: 6.28(일) 14:00
장소: 고령 월막 대구성령봉사회관
집전: 조환길 타대우 대구교
차량: 교구청 대건인쇄소 앞 12:30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21(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6.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남대영기념관 개관 기념

김종숙(요안나) 성물도예전

기간: 6.16(화)~25(목)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주제: 엄마생각, 하늘생각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629-1117

교육 | 모집

6월 가나 강좌

일시: 6.21(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32차: 7.10(금)~12(일)
333차: 7.31(금)~8.2(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31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6.20~7.26(5주간, 매주 토)
※7.18(토) 휴강 / 5주차 가족피정(1박)
장소: 3대리구 성토마스성당/15만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젊은이 문화토크(사랑과 책임)

일시: 6.27(토) 18:00(삼척젊은이성당)
주최: 청년국, 422-6692

112차 대구 선택 주말

기간: 7.10(금)~12(일), 꾸르실료교육관
마감: 7.3(50명), 문의: (010)3265-1932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6.14(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성가반주법 및 가곡교실
강사: 김현숙(레지나), 김남수(그레고리오)
문의: (070)4266-004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기간: 9.5(토)~16(수) 11박 12일
장소: 이스라엘, 이탈리아
경비: 435만 원(www.cttour.org)
문의: (02)2281-9070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일자: 9.5,19(토)/10.17,31(토)/11.14(토)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학관 등
참조: www.dgppbc.co.kr, 단체 신청 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문의: 251-261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경복(블루시아노), 손지연,
손성구(스테파노), 이태봉(베드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청 문화홍보실 직원 채용

자격: 30세 미만 여성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6.17(수) 17:00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한투어 (주)한투어
HANTOUR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이 원 의 료 기
협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물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상상병원 방향)
김경일(아네스)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련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스피치 토크의 가장 핵심서재
Speech.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비나)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대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NAVER 메디핏동물병원 검색
각종 수술 전문 중증 노령견 전문
메디핏동물병원
원장 임대진(미카엘)
병원 761-8875 TBC 맞은편